

여성 폭력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겠습니다!

5월 17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강남역 10번 출구에 수많은 여성들이 포스트잇으로 추모의 메시지를 붙이며 ‘여성혐오’,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다되어가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신림동 공원 살인사건, 2024년 의대생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인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n번방’사건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온라인상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형태를 바꾸가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가해 남성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가해 남성에게 접근금지 조치하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실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인 불평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6.7%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3년 간 정책에서 ‘여성지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며 지난해 초부터 수장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도 2010년 지수 발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수 십 년간 우리 국민들이 쌓아올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와 체계를 한없이 추락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료로 대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여성공약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건설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 확대 ▲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 강화 ▲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모니터링 ▲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벨 보급 등 여성 안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죽는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일상에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내란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가치도 짓밟았습니다. 내란극복, 헌정수호는 성평등 가치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본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본부장 이수진 · 백혜련)